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17세기 초부터 19세기 말까지인 근대 국어에서 가장 현저한 음운 변화의 하나는 구개음화이다. 구개음화는 현재 끝소리가 ‘ㄷ, ㅌ’인 형태소가 모음 ‘ㅣ’나 반모음 ‘ㅣ’\*로 시작되는 형식 형태소와 만나 ‘ㄷ, ㅌ’이 ‘ㅈ, ㅊ’이 되는 현상으로 정의되고 있는데, 원래 구개음화란 구개음이 아닌 자음이 어떤 음운의 영향을 받아 구개음이 되는 현상을 포괄적으로 지칭한다. 따라서 국어사에서 구개음화는 모음 ‘ㅣ’나 반모음 ‘ㅣ’ 앞에서 ‘ㄷ, ㅌ, ㅌ’이나 ‘ㄱ, ㅋ, ㆁ’이 구개음인 ‘ㅈ, ㅊ, ㅉ’이 되고, 그 밖의 몇몇 자음이 같은 조건에서 구개음이 되는 현상을 모두 포괄한다.

구개음화는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에 남부에서부터 시작하여 북상한 것으로 추정된다. 1824년에 나온 유희의 『언문지』에는 당시 사람들이 ‘다더’나 ‘타터’를 ‘차저’나 ‘차쳐’와 동일하게 발음하고 관서 지방 사람들만이 ‘텨(天)과 ‘첸(千), ‘디(地)와 ‘지(至)’를 구분하여 발음한다고 기술되어 있다. 이를 통해 당시 평안 방언을 제외한 여러 방언에서 구개음화가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구개음화가 상당히 진척되면서 ‘디, 다, 더, 도, 듀’와 ‘티, 탁, 터, 툐, 튜’ 등과 같은 결합이 나타나지 않게 된다. 구개음화가 진척된 이후에 ‘디, 티’가 ‘디, 티’로 변하면서 이 형태가 다시 나타나게 되는데, 이는 ‘디, 티’가 구개음화의 영향에서 벗어나 있었기 때문이다.

근대 국어에서 나타난 ‘ㄷ, ㅌ’의 구개음화는 ‘ㅈ, ㅊ’이 구개음으로 변한 것을 전제로 한다. 중세 국어에서 ‘ㅈ, ㅊ’은 원래 치음이었는데, 이것이 모음 ‘ㅣ’나 반모음 ‘ㅣ’ 앞에서 구개음으로 변한 뒤에야 ‘ㄷ, ㅌ’ 등의 구개음화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처음에는 ‘ㅈ, ㅊ’이 모음 ‘ㅣ’나 반모음 ‘ㅣ’ 앞에서만 구개음으로 변하다가 ‘ㅈ, ㅊ’을 모두 구개음으로 발음하게 되면서 이제까지 존재해 왔던 ‘자, 저, 조, 주’와 ‘차, 쳐, 초, 쥬’의 변별적 차이가 사라진다. 이 때문에 19세기 문헌에서는 ‘자’와 ‘차’, ‘저’와 ‘쳐’ 등이 구분되지 않는 사례가 많이 나타나게 된다.

구개음화는 이 밖에 ‘ㅣ’나 반모음 ‘ㅣ’ 앞에 오는 ‘ㅅ’이나 ‘ㄴ’ 등에서도 나타났다. 어두에서 모음 ‘ㅣ’나 반모음 ‘ㅣ’에 선행한 ‘ㄴ’의 탈락은 구개음화된 ‘ㄴ’을 어두에서 발음하기 어렵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다. ‘ㄴ’의 탈락 현상이 나타난 시기는 대략 18세기 후반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때의 문헌을

보면 ‘님금’이 ‘임금’으로 ‘니르다’가 ㉠ ‘이르다’로 표기된 예가 나타나기 시작하며, 19세기에 오면 이러한 어두에서의 ‘ㄴ’ 탈락이 일반화된다.

근대 국어에서 구개음화는 ‘굳’과 ‘이’가 합쳐진 ‘굳-이’에서와 같이 형태소 경계에서 일어나기도 했지만, 하나의 형태소 내부에서도 일반적으로 일어났던 현상이었으며, 이로 인해 ‘티다’가 ㉡ ‘치다’로 변한 것과 같이 그 형태가 바뀌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단일 형태소 내부에서의 구개음화는 공식적으로 파악되기가 어렵다. 따라서 현재 구개음화는 주로 형태소 경계에서만 일어나는 음운 현상으로 이해되고 있다.

\* 반모음 ‘ㅣ’: ‘ㅌ, ㄱ, ㄴ, ㄷ’와 결합하여 이중 모음 ‘ㅌㅌ, ㄱㅌ, ㄴㅌ, ㄷㅌ’를 만드는 소리.

1. 위 글에서 해결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닌 것은?1)

- ① 국어의 구개음화는 어떤 음운 조건 하에서 일어나는가?
- ② 근대 국어에서 ‘ㅈ, ㅊ’의 구개음화가 일어난 이유는 무엇인가?
- ③ 근대 국어에서 구개음화가 나타나는 지역적 분포는 어떠한가?
- ④ ‘ㅈ, ㅊ’의 구개음화와 ‘ㄷ, ㅌ’의 구개음화 중 어느 것이 먼저 일어났는가?
- ⑤ 현재 ‘ㄷ, ㅌ’의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은 ‘디, 티’가 남아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2.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2)

- ① ㉠과 ㉡에는 모두 구개음이 아닌 자음이 구개음화되어 나타나 있다.
- ② ㉠과 ㉡은 모두 모음 ‘ㅣ’의 영향으로 인해 구개음화된 자음이 탈락되었다.
- ③ ㉠과 ㉡은 모두 근대 국어 시기에 구개음화의 과정을 거쳐 그 형태가 바뀌었다.
- ④ ㉠은 형태소 경계에서 구개음화가 일어났고, ㉡은 단일 형태소 내부에서 구개음화가 일어났다.
- ⑤ ㉠은 같은 조건에 있는 모든 음운에서 구개음화가 일반적으로 일어난 사례이고, ㉡은 일부의 음운에서만 특수하게 일어난 사례이다.

3. 위 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자료를 탐구해 보았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더(저) 네 아드룬 어덜어늘(어질거늘) 내 아  
드리 비록 믈디라도(말이라도) …… ㅈ이 네 아  
드를 내티쇼셔(내치소서)

- 『월인석보』 중에서 -

㉡ 그디 살고 니가 죽으면 저 즈식을 키울 거슬  
니가 살고 그디 죽어 저(저) 자식 엇지(어찌) 키  
잔 말고 익고 익고 모진 목숨 …… 어린 자식  
엇지홀ㄷ(어찌할까)

- 『심청전』 중에서 -

※ ( ) 안에는 해당 단어가 현대 국어와 다른  
경우 현재의 표기 형태를 밝혀 준 것임.

- ① ㉠의 ‘더’와 ㉡의 ‘저’가 같은 단어이지만 형태가 다  
른 것으로 보아, ㉠이 ㉡보다 앞선 시대의 자료임을  
알 수 있어.
- ② ㉠의 ‘더’, ‘덜’, ‘디’, ‘티’에서 ‘ㄷ’과 ‘ㅌ’이 ‘ㅣ’나 반모  
음 ‘ㅣ’ 앞에 오는 것으로 보아, 이 음절의 초성 ‘ㄷ’  
과 ‘ㅌ’이 당시에는 구개음이었음을 알 수 있군.
- ③ ㉡의 ‘저’, ‘지’, ‘진’에서 ‘ㅣ’나 반모음 ‘ㅣ’ 앞에 ‘ㄷ’  
이 나타나지 않고 ‘ㅈ’만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는 구개음화가 상당히 진척된 후의 자료로 추정할  
수 있어.
- ④ ㉡의 ‘저’와 ‘저’는 같은 단어인데 그 형태가 다른  
것으로 보아, ‘ㅈ’을 구개음으로 발음하게 되면서 구  
분되지 않고 사용된 사례로 볼 수 있어.
- ⑤ ㉠의 ‘어덜어늘’과 ㉡의 ‘모진’이 현재 ‘어질다’, ‘모  
질다’라는 기본형을 갖게 된 것으로 보아, 근대 국어  
에 나타난 구개음화 현상이 현재에까지 영향을 미친  
다고 할 수 있군.

1) ㉔(41%)

이 글에서는 근대 국어 시기에 가장 현저한 음운 변화의 하나인 구개음화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구개음화의 개념 및 그것이 일어나는 음운 조건, 구개음화가 일어난 시기와 지역, 구개음화와 관련된 자료, 구개음화가 진행된 과정과 양상 등을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근대 국어에서 ‘ㅈ, ㅊ’의 구개음화가 일어난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하고 있지 않다.

2) ㉕(48%)

㉑ ‘이르다’는 구개음화된 ‘ㄴ’이 어두에서 음운 제약에 의해 탈락된 것이고, ㉒은 ‘ㅌ’이 ‘ㄷ’으로 구개음화된 것이다. 이 둘 모두 구개음화의 과정을 거쳐 그 형태가 바뀐 단어이다.

[오답풀이] ㉑에는 구개음화된 ‘ㄴ’이 탈락되어 나타나 있지 않고, ㉒에서는 구개음화된 자음이 탈락되지 않았다. ㉑과 ㉒ 모두 단일 형태소 내에서 구개음화가 일어났으며, 같은 조건에 있는 모든 음운에서 구개음화가 일반적으로 일어난 사례이다.

3) ㉖(44%)

㉖는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은 시기의 자료이다. 따라서 이 시기의 ‘ㄷ’과 ‘ㅌ’은 구개음이 아니었다.